부산종친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제24대 신임 회장에 권영현 부회장 추대

권성용 종친회장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는 지난 5월 20일 11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에 권영현 부회장을 추대하였다. 부산 종친 400여 명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총회는 대종회 권해옥 회장을 대신하여 권길상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권갑현 종보 편집 위원장, 권영록 합천군 종친회장 등 원근에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하였다.

권정수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회기 입장부터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가운데 국민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에 이어 참석 인사 소개와 공로패,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성용 종친회장은 이임사를 겸한 인사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업적도 없이 신세만 지고 물러나게 되어 면구스럽다며, 여기 오신 족친 여러분께서 더 큰 애정을 갖고 집안 자녀, 손 자녀가 종친회를 찾도록 해서 새 회장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그동안 성원해 준 임원, 족친께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축사에 나선 권길상 대종회 상임부회장은 멀리서 불원천리하고 오신 내빈에 대한 감사 인사와 종친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총회 준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뒤, 코로나로 서로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종친회가 위축되어 안타깝다며 원로 어른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끌어 모아 종친회가 활기를 되찾는데 모두가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권영호 명예회장은 전 회장님들 노력으로 종친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며 그 공로를 칭송하고, 권성용 종친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부산 종친회의 발전에 족친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이어진 회의는 경과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의안을 상정, 처리하고, 총회에 임원 선임 결과 보고를 통해 권영현(36세, 복야공파) 신임 회장과 권영인, 권장섭 등 감사 두 분을 발표하였다.

신임 권영현 회장은 일찍이 교육계에 몸담아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부산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다. 대대적인 환영 속에 회기 인수와,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등장한 신임 권영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회에 온 족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부족하지만 종친회를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경로효친과 어른 공경, 조상 숭배가 흐려져 가는 세태라 종친회를 이끌기가 무척 어렵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세 가지 시급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보겠다며, 첫째는 종친회 회원 증대를 적극 추진하여 종친회에 활력을 되살리는데 노력하고, 둘째는 보학 강좌를 활성화하여 조상 숭배와 뿌리를 알아가는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며, 마지막으로 종친회 사무실 개방으로 조부나 부모가 아들, 손자와 함께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만들어 종친회의 정신과 종친회를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하였다.

계속된 정기총회는 권문의 노래와 만세삼창을 끝으로 1부를 마치고, 식사와 함께 시작된 2부 행사는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으로 흥을 돋우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종회 권해옥 회장을 비롯한 많은 축하 화환과 서병수 국회의원(전 부산시장) 등의 축전으로 더욱 빛나는 정기총회가 이루어졌다.

권채영 사무국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향계 춘향제 봉행

계묘년(癸卯年) 5월 7일(음력 3월 18일) 안동시 성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향사(又鄕祠)에서 우향계원(又鄕契員)인 5개 문중 안동권씨(安東權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영양남씨(英陽南氏), 흥해배씨(興海裵氏), 안강노씨(安康盧氏) 등 후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45회 춘향제(春享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남태승씨가 분정(分定)을 담당하여 우향각(又鄕閣) 큰 방에서 헌관, 제관, 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에 걸쳐서 집필을 하였는데 초헌관 남세동(南世東), 아헌관 노채균(盧彩均), 종헌관 이상희(李相熙), 축관 남태승(南泰承), 찬자 권택호(權宅鎬)가 각각 담당하는 분정례를 마쳤다. 분정례가 끝나자 우향각 큰 방과 마루에서 계원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읍례(相揖禮)를 한 후 우향사(又鄕祠)로 자리를 옮겼다.

우향사에는 5개 문중 선조 13명의 위패(位牌)를 모셔 놓았는데 권택호 찬자의 진행에 따라 1시간에 걸쳐 엄숙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해마다 제례(祭禮) 주관은 5개 문중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영양 남씨가 주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회(契會)로 서로 덕업(德業)을 권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지금부터 545년 전 조선 성종 9년(1478)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향계를 기념하고 창립회원 13명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건립한 각(閣)과 사당(祠堂)이 지금의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이원(李原, 固城李氏)의 아들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안동권씨 3명, 영양남씨 4명, 흥해배씨 4명, 안강노씨 1명 등 모두 13명이 조직, 계첩(契帖)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장편의 7언(言) 고시(古詩)를 지어 축하하기도 했다.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社會相)를 바로 잡고 생활의 규제를 담은 계안(契案)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제49차 정기총회 찬조금

(접수순) 2023. 05. 24. (단위 : 원)

성명 및 종중	금 액	지 역	비 고
지역종친회장협의회	200,000	충북	권태호 회장
금천 종친회	100,000	서울	권대영 회장
권경석	50,000	서울	
대전 참의공파종중	300,000	대전	권동원 이사
대전 종친회	200,000	대전	권용기 회장
제천 종친회	200,000	제천	권두상
권도현	200,000	서울	대종회 종무위원

성명 및 종중	금 액	지 역	비 고
권주현	200,000	서울	대종회 이사
권오원	50,000	제천	
수원 종친회	100,000	수원	권병후 회장
권 순 용	50,000	서울	대종회 이사
권희철	100,000	안양	대종회 부회장
권홍태	50,000	서울	대종회 이사
합 계 1,800,000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 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2023年 6月 임원 회비 및 찬조금 납부 내역

< 찬조금 >

권영창 회장	10,000,000원
제49차 정기총회(명단은 아래 광고 참조)	1,800,000원
권용일 부회장	300,000원

< 임원 회비 >

부 회 장

권용일(서울구로)	1,000,000

이 사

권동현(서울강동)	300,000
권재호(산청)	300,000
권오순(충주)	400,000
권혁구(음성)	300,000
권혁철(음성)	300,000
권대균(안동)	300,000

종무위원

권병선(서울동대문)	200,000
권욱형(원주)	200,000
권장승(서울성동)	2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합계 : 15,6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제68회 안동권씨부호장공파 경로잔치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주연) 제 68회 경로잔치가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농민후계자식육식당'에서 고문, 원로, 종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해마다 경로잔치는 정일(定日)인 5월 20일 개최하였으나 지난 2019년 코로나가 발행하는 바람에 2년간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권주연 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경로잔치에 참석한 종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어떤 종원은 자신이 어느 문중계열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조금 후에 자신을 소개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권광택 도의회 의원은 인사말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열심히 일 하겠다"며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성규 안동문화대학 학장은 보학강좌에서 "안동권씨의 족보 책인 성화보 내용이 우수하다"고 칭찬한 후 "안동향교에서 한문 강의를 한 관계로 천자문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동권씨는 우리나라 전체 성씨 가운데 인원이 많기로 14번째이며 인원수는 74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안동시민 가운데 안동권씨가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학강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돌아가면서 자신이 무슨 문중의 무슨 계열이며 간단한 경력과 약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개가 끝나자 종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와 육회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고 떡, 수박, 술, 음료수 등 푸짐한 먹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즉석에서 85만원의 찬조금이 접수되었다.

권주연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형제영광모싯잎 송편' 1통씩을, 권중용 종원이 삼성목욕탕 무료 입장권 1장씩을 선물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5)

그의 시는 통속적이면서도 청신하며 「죽지사竹枝詞」가 유명하다. 철학저작인 「天論」에서는 하늘과 사람의 구별에 대해 논증했다. 즉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음덕설(陰德說)을 반박하고 '하늘과 인간은 상승(相勝)한다'는 설과 '상용(相用)된다'는 설을 주장하여 하늘이 인간 세상의 길흉화복을 더 이상 주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유신론(有神論)에 대한 근원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법제가 잘 행해져서 상벌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은 천명(天命)에 바라는 것이 없겠지만, 만일 법제가 흐트러져 있어서 상벌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오로지 천명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 백거이(낙천)의 정치사상 중당(中唐)시대(대종代宗 대력大曆원년:766~문종文宗 태화太和9년:835 = 66년간)에는 과거제도가 효과를 거두어 그 시험에 통과한 진사 출신의 새로운 관료집단이 진출하여 구(舊) 문벌집단을 압도했는데, 백거이가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그로서는 행운이었다. 백거이는 800년 29세 때 최연소로 대과 진사(進士)에 급제했다. 이어서 서판발췌과(書判拔萃科)·재식겸무명어체용과(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연속 합격했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한림학사·좌습유 등의 청요직(淸要職)에 발탁되었다. 815년 발생한 재상 무원형(武元衡, 758~815, 하남(河南) 출신으로 그의 증조부 무재덕(武載德)-측천무후(則天武后, 624?~705)의 집안 조카(族弟)였다)을 절도사 이사도(李師道, ?~819, 고구려 유민으로 한 때 산동성 전체를 석권하였다)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된 사건에 관하여 직언을 하였다가 조정의 분노를 사 강주사마(江州司馬)로 좌천되었다. 842년 형부상서(刑部尚書 ; 법무부 장관)를 끝으로 관직에서 은퇴했다. 한림학사 시절의 동료 5명은 모두 재상이 되었으나 백거이는 스스로 '어옹(漁翁 ; 낚시하는 늙은이)'이라 자칭하며 만족해했다.

이와 같은 성실하고 신중한 태도로 인해 그는 정계의 격심한 당쟁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그가 지은 시 작품의 수는 대략 3,840편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시대의 최고 다작으로 가히 '시호(詩豪 ; 시의 호걸)'이라 할만하다.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에는 정치이념과 사상을 주장한 것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있는데, 모두 평담(平澹)한 언어로 알기 쉽게 표현되었으며, 시에 봉급의 액수까지 언급하는 등 매우 당당했다. 때문에 '평이(平易)하고 속(俗)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비상한 노력과 식견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었다.

이백·두보·한유 등 당나라 시대 백거이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시인의 작품에는 송대(宋代) 이래 많은 주석서가 있는데 반해, '백씨문집白氏文集'에는 그러한 주석서가 없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백거이는 "글을 쓰는 사람은 본래 천하의 정치에 책임을 져야 하고(우리나라 실학자요 세계 최고최대의 문집-540 여권-을 남긴 다산 정약용도 '모름지기 글이란 천하만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경세제민經世濟民-와 관련 없는 글이란 글이 아니다'라고 하였던가?), 그 작품은 백성의 뜻을 군주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정치의 옳고 그름을 풍유(諷諭 ; 風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거이(낙천)은 「시경詩經」이야말로 이 같은 문학의 본질을 잘 나타낸 작품이며, 후세 특히 육조(六朝 ; 吳, 東晋, 宋, 齊, 梁, 陳) 시대(221~389년) 이후의 문학은 기교만을 중시한 나머지 본래의 이념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백거이가 지은 조(詔)·칙(勅)·제(制)·고(誥) 등은 한림학사들에게 「육전六典」보다도 더 존중받았다. 「육전」은 황제의 칙명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당대 관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글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자(天子) 대신 천자의 세계관과 이념을 그에 맞는 전아(典雅)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조·칙·제·고 등은 그 주요한 서술 형식이었다. 칙명을 받아 그러한 글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견과 웅장한 필치를 지녀야만 했다. 뛰어난 작가는 '대수필(大手筆)'라 하여 커다란 영예를 부여받았는데, 백거이는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백거이는 문학(文學)으로써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을 문학과 학문(學問) 활동의 목적으로 삼은 실학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책림策林」에서 '성인(聖人)도 이(利)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롭게 여겼으며, 성인도 부(富)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온 세상(天下)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부로 여겼다.'고 하였다.

일찍이 중국 북송 시대 진보적인 철학자이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대문호(大文豪)이자 신법(新法)을 주장하며 근대적 제도개혁을 단행했던 뛰어난 재상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이른바 '삼부족설(三不足說)'을 그의 경세사상(經世思想)으로 펼치며 주장하였다. 그의 삼부족설이란 '하늘의 변화(難)를 두려워 할 것이 없고(天變不足畏)'·'조상들의 낡은 옛 제도는 법도로 삼기에는 부족하다(祖宗不足法)'·'사람들(속된 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人言不足恤)'는 것이다. 이러한 구호의 주장이 왕안석 직접 본인의 언론인지, 반대파인 구법당 인사나 그 후예 추종자들의 날조인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하지만 이 '삼부족설은 송나라의 화근일 뿐만 아니라 만세의 화근'이라고 후대에 혹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